

光日春秋

전성철



현 정부가 취임한 지 이제 막 1년이 넘었다. 지나간 1년보다 더 중요한 4년이 남았기에 새 정부의 취임 1년 성적은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만, 한 정권의 처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끼리 그것을 잴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각종 정파의 이해관계에 얽혀 사실 누구의 말도 신뢰하기가 힘들다. 결국 외국 전문가의 평가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외국 전문가의 평가가 있는가. 그것도 매년 말이면 정확히 나오는 평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장과 정치적 안정이 있어도 정부의 정책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외국인 투자가 매년 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총합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즉, 한 나라의 외국인 투자 추이는 그 나라의 경제의 가장 객관적인 성적표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현 정부의 성적표는 관측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는 2004년 127억 달러에서 2005년 115억, 2006년 112억 달러, 2007년에는 105억 달러로 주저앉았다가 2008년 117.1억 달러를 유치하여 전년 대비 17%의 성장률

경을 만드는 게 투자유치를 위한 첫째 조건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매력은 지구공동체에서 다시 상승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지금 사실상 1년 내내 미스유니버스대회를 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로 더 많은 의자를 유치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더 매력적인 나라가 되려고 야단이다. 왜냐하면 수출 100억 달러 해봐야 남는 돈은 1억 달러가 될까 말까 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의 현실이다. 외국인 투자자 1억 달러 들어오면 그것은 수출 100억 달러 한 것만큼 실적이 있는 것이다.

유능한 정부의 기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단순히 경제만 갖고 평가할 수도 없다. 경제성장을 이뤘다 해도 만약 돈을 마구 풀어인플레이션 위험을 가중시켰다면 그것은 잘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인플레이션 위험 없이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해도 만일 주변 국가들이 다 그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이뤘다면 역시 별로 잘한 것이 못 된다. 그렇지만 객관적 평가 기준이란 무엇일까. 과연 그런 것이 있는 것일까?

바로 그 해에 그 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의 합이다. 세계의 다국적기업들은 수많은 나라들을 후보로 두고 투자 결정을 한다. 그들은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에 투자한다. 그 나라가 좋아질수록 투자 액수도 늘어난다. 그들은 한마디로 한 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도 사들이다. 엄청난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나라를 정하는 데 있어 엄청난 공부와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경제를 중요하게 보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의 총합을 평가한다. 아무리 시장이 넓어도 정치가 불안하면 안 된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안정돼도 경제 인프라이 좋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시

이했다. 2006년도 5.2% 하락, 2007년도 14.7% 하락한 것에 비해 고무적인 수준의 성장이다. 4년만의 증가세 회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투자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친 기업(Business Friendly) 정책 조 등에 힘입어 투자유치 확대의 추진력을 다시 확보한 셈이다. 투자금액 증가와 함께 신고건수에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 2000년의 4천145건 이후 3천774건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또, 국가경쟁력 위원회에 외국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 정책투명성 제고와 함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수립으로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조치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살고 싶은 생활환

시설

눈 먼 지자체 감사 시스템 이대로 돌 것인가

해남군 해남읍사무소 7급 여자 공무원의 횡령사건은 지방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과 구멍 뚫린 지자체 감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5년이 넘도록 10억 원 이상의 공금을 빼돌렸는데도 해남군이나 전남도에서는 전혀 몰랐다니 말이 되는가. 지방 공무원의 나랏돈 빼먹기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진도군, 서울 용산구와 양천구, 충남 아산시, 강원 춘천시 등 전국에서 횡령사건이 잇달아 적발됐다. 이는 지자체 감사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자체 감사제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감사관실이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사 담당자들도 기관장의 인사권 앞에는 꺾이지 못한다. 자칫 감사를 하다가 단체장의 미움을 사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한데 어떻게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지자체의 경우 지연·학연 등으로 얽힌

지역사회 특성 때문에 자체감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 감사기구의 매우 낮은 전문성도 문제다. 대부분 감사실에서 1~2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전출된다. 전문성은커녕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감사 시스템으로는 지방 공무원의 비리 근절은 '백년하청'이다. 지자체의 감사기구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에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에 의의화하고, 감사기구의 장을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것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감사관실이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사 담당자들도 기관장의 인사권 앞에는 꺾이지 못한다. 자칫 감사를 하다가 단체장의 미움을 사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한데 어떻게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지자체의 경우 지연·학연 등으로 얽힌

교통사고 1위 광주 '문화수도' 부끄럽다

20년 넘게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온 50대 대학 교수가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통학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10일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버스를 몰던 운전사가 졸음 운전을 하다 인도 쪽 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교수 쪽으로 갑자기 운전대를 꺾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사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은 교수는 국내 수학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 크다.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이 한 천재교수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것이다. 사실 광주의 교통문화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발표한 '2008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56.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105.7건보다 무려 51건이 높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568.8건으로 전국 1위다.

게다가 광주 교통사고율은 지난 200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가장 높았다. 한번 하기도 어려운 불명예를 두 번이나 차지한 것이다. 이쯤 되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기보다는 교통사고 중심 도시라고 해야 옳을 듯하다. 물론 여기에는 타 도시에 비해 낙후된 광주의 도로연간도 배를 수 없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잘못된 교통문화와 안전 불감증이다. 광주의 '무질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끼어들기와 과속, 불법 U턴,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운전하기 무서운 도시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교통사고를 전국최고'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잘못된 운전습관과 안전불감증을 씻어내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이문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드디어 대학에 오면서 계속 늘어나던 몸무게는 갑자기 하향곡선을 달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수업시간, 모임을, 저녁까지 친구들과 사내에서 영화보고 노는 등의 할 일이 많았던 것도 있었지만 예뻐하려면 살을 빼야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50kg이 넘어가면 그 이하로 줄여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을 정도로 무작정 다이어트에 몰입한 적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48kg 정도 되어 다들 살이 빠지니 예쁘다고 해주고 아가씨 때는 날씬해야한다고 이야기했었다. 여성들이 날씬해야 예쁘다고 생각하는

진 경우 등이다. 원인으로서는 생물학적 요인, 정신적 요인, 날씬함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등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모두 연관돼 있다. 성격적인 특성으로 조심성이 있고, 양심적이며, 부모 말을 잘 듣고, 자제력이 강하며, 목표 지향적이고, 완벽주의적이다. 반면에 강박적인 걱정을 많이 하고, 남에게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성취지향적인 여자, 패션모델, 발레리나, 댄서, 경마기수 같은 특정 직업의 여성에 더 많으며 신체적으로나 성격, 사회적으로 아이에서 여자로서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

기고

백계진



물은 우리의 생명유지에 공기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는 상수도와 지하수에 의해 풍족한 수량을 공급받는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수산원의 부족, 여름철의 집중강우, 그리고 기후온난화로 인해 가뭄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도 식수원인 동백담 저수율이 37%로 작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물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가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빗물

처리하거나 향아리를 이용하여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나 조경용수로 활용하자. 목욕탕 물이나 수영장수, 공장 폐수 등과 같이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물을 다시 정화하여 화장실 용수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물을 중수도라 하며, 속박업 또는 목욕탕시설중 건축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 것과 1일 폐수배출량이 1,500톤 이상인 공장은 중수도를 설치해야 한다. 중수도 시설설치를 장려하려면 정부에서는 초기 시설투자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해주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어야 하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군도 확대해야 한다.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자

이용,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할 방침임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10만 명 남짓의 국민이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법제정은 시의적절하며, 광주시에서도 물부족에 대비하고자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각종 물 재이용 정책을 펴고 있다. 빗물이용시설을 확대하려면 먼저 공공청사부터 설치하여 민간시설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붕 면적이 2천400㎡ 이상이고, 관망석수가 1천 400㎡ 이상인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용에 대한 선조의 삶의 지혜를 찾아보면 선조는 빗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집집이 '물독대'를 장독대와 같이 따로 설치해 두고 빗물을 받아 사용하였 다. 우리도 집집이 빗물이용시설을 설

유출지하수는 빗물이나 재이용수와는 달리 수질이 양호하고 생활용수으로도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하수법에서는 유출지하수나 지하철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각 1개소당 1일 300톤이상 일 때와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이상 일 때와 관련 규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물 재이용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물 절약이 생활 속에서 습관화되어 있어야 한다. 70~80년대 격일제 급수, 삼일제 급수 등 과거 세대에는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겠지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대에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물의 고귀함을 깨우쳐 주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농촌폐기물 불법소각방지대책 마련해야

농촌 마을에서 불을 지르는 곳을 쉽게 볼 수 있다. 영농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비닐을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은 집에 이를 쌓아두고 버려두는 걸 보니 많이 편지 않았다. 요즘은 친환경농산물에 대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관리 깨끗하게 한다고 친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처음과 같이 환경을 생각하는 작업으로 이뤄져야 비로소 친환경 농산물의 의미에 부합하는 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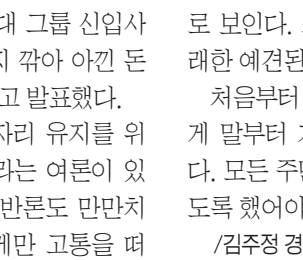
쓰레기 소각 때 나오는 재에는 납과 수은, 다이옥신 등이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논밭의 토질에 섞일 뿐더러, 오염물질이 공기를 통해 확산되는 것은 물론 빗물에 섞여 강과 바다로 흘러가기도 한다. 당국이 농촌의 쓰레기와 폐비닐을 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놔면 좋겠다. 지자체에서도 주민홍보 강화 등 불법 소각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바란다. ▲정영환·광주시 동구 총장로

無等鼓

옛날 프랑스의 어느 시골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마을 회의가 열렸다. 돕지 않으면 도둑이 될 수도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먼저, 말이 2필 있는 사람은 1필만 기부하자는 안이 상정됐다. 별 반대 없이 통과됐다. 다음으로, 닭이 2마리 이상 있는 집은 1마리씩 내 놓자는 안이 올라왔다. 이 안은 부결됐다. 말 가진 주민은 한 사람 뿐이었으나, 닭은 주민 모두가 기르고 있어서였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내 것 내놓는 데는 인색한 우리네 세태와 많이 닮았다. '대졸 초임 삭감 계획'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만 만들어 내수 진작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급기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나섰다. 대책회의는 임금삭감은 노동계와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노총은 대졸 초임 삭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말 가진 주민은 한 사람 뿐이었으나, 닭은 주민 모두가 기르고 있어서였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내 것 내놓는 데는 인색한 우리네 세태와 많이 닮았다. '대졸 초임 삭감 계획'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대졸 초임 삭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국내 대졸 초임이 일본, 대만 등에 비해 훨씬 높으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초임을 최고 28%까지 깎아 아낀 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어떤 선택이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너무 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사회 초년생에게만 고통을 떠

지시했다. 기존 직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정부는 실제 공기업 직원의 임금삭감을 꺼낼 태세였다. 정부나 재계로선 삭감 대상이 대졸 신입사원→공기업 직원→민간기업 직원 순으로 확대되길 바랐는데, 일이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통 없는 '여론 몰이'가 초래한 예견된 실재다. 처음부터 닭 한 마리도 없는 주민에게 말부터 기부하라고 할 일이 아니었다. 모두 주민이 달걀 한 알씩이라도 내도록 해야 했다. 방법이 틀렸다. /김주석 경제부장 jnews@kwangju.co.kr

마른체형이 아름다운건 아니다

그런 사회에서 혼자서 뚱뚱하면서 나는 아름답다고 우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보면 내가 너무 배짱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랬다. 이런 타인들의 시선과 날씬함을 강조하는 최근 사회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섭식장애가 늘어나고 있다. 섭식장애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 신경성 대식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중 신경성 식욕 부진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체형 선호도 조사에서 여학생들의 61.4%가 마른 것을 이상적 체형으로 생각한 반면, 보통 체격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3.4%에 불과했다. 최근 대학생들과 젊은 여성들만이 아니라 중고생 심지어 초등생들까지 몸무게에 대해 민감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 질환이 10대 소녀들 사이에 세 번째로 흔한 만성 질환일 정도로 많다고 한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진단기준은 우선 나이와 키에 비해 체중을 최소한 정상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다. 또 낮은 체중에도 불구하고 체중증가와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 체중과 체형을 느끼는 방식이 왜곡되거나 체중·체형이 자기평가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무월경이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이어

진 경우 등이다. 원인으로서는 생물학적 요인, 정신적 요인, 날씬함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등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모두 연관돼 있다. 성격적인 특성으로 조심성이 있고, 양심적이며, 부모 말을 잘 듣고, 자제력이 강하며, 목표 지향적이고, 완벽주의적이다. 반면에 강박적인 걱정을 많이 하고, 남에게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성취지향적인 여자, 패션모델, 발레리나, 댄서, 경마기수 같은 특정 직업의 여성에 더 많으며 신체적으로나 성격, 사회적으로 아이에서 여자로서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인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F A X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	2200-551
여론대책부	2200-679	(F A X	227-9500)
정체부	2200-634	독자서비스	2200-551
체육팀	2200-663	(F A X	227-9500)
체육팀	2200-679	다자민	2200-536
사회1부	2200-612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2부	222-4267	(F A X	02-773-9335)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